

Eugene Daily Snapshot

'반도체'한 코스피, 반도 채 못한 코스닥

주식

(단위: pt, %)

		증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8,476.48	1.0	3.3	0.0	101.1
	KOSDAQ	916.18	-0.5	2.8	-14.8	-1.0
미국	DOW	52,319.20	0.3	1.3	2.5	8.9
	S&P500	7,499.36	0.8	1.8	-1.1	9.6
	NASDAQ	26,213.72	1.5	2.4	-2.8	12.8
	필라델피아 반도체	14,246.96	3.9	5.7	11.0	101.1
유럽	EUROSTOXX50	6,328.09	1.5	1.6	4.6	9.3
	독일 DAX40	24,995.81	1.5	0.4	-0.4	2.1
아시아	일본 NIKKEI225	70,062.32	0.9	0.4	5.6	39.2
	홍콩 항셱	22,881.02	-0.6	-2.0	-9.1	-9.1
	대만가권	46,125.91	2.5	-2.1	3.1	3.1
	중국상해종합	4,094.40	0.5	-0.3	0.6	0.6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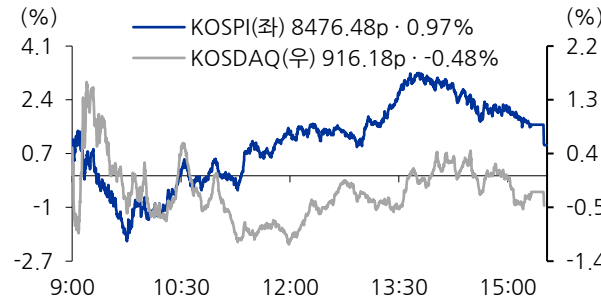
		증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년물	3.70	-3.0	-6.7	-2.8	75.0
	국고채 10년물	4.09	-5.3	-8.0	2.3	70.6
미국	미국채 2년물	4.18	6.7	-2.3	17.0	70.3
	미국채 10년물	4.47	9.0	-3.1	2.9	30.7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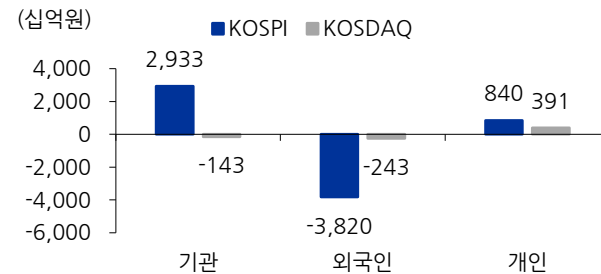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증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549.40	0.3	0.7	2.8	7.7
	달러지수(pt)	101.13	0.0	-0.2	2.2	2.9
원자재	WTI 연결물(\$)	69.50	-1.8	-5.1	-20.4	21.0
	금 연결물(\$)	4,038.50	0.0	-2.7	-12.1	-7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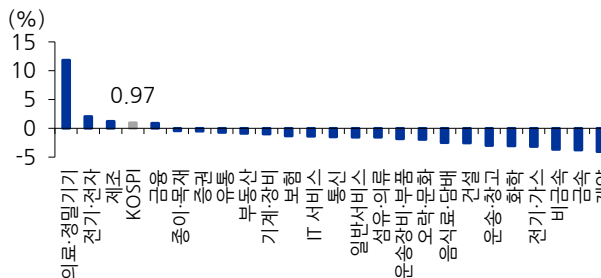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



투자지별 수급 동향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



전일 해외 증시

상반기 3대 지수 동반 상승, 필 반도체 +101%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 &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.** 다우 +0.3% · S&P500 +0.8% · 나스닥 +1.5% · 필 반도체 +3.9%.
- **상반기 누적 수익률은 다우 +8.9% · S&P500 +9.6% · 나스닥 +12.8%, 필 반도체는 +101.1%로 압도적.**
- **삼성전자·SK 하이닉스 투자 발표에 반도체 장비주도 동반 상승.**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(+4.1%)·램리서치(+5.5%)·KLA(+8.4%).
- **매크로 지표 견조, 6월 소비자신뢰지수 91.2(전월비 +0.6p, 컨센서스 하회)·5월 JOLTs 구인건수 759.4 만건(예상 728 만건 상회).**

오늘 국내 증시

코스닥 반등 시도 무산, 코스피 주도주로 회귀

- **국내 증시, 기존 주도 업종(반도체) 중심 재차 강세 & 코스피·코스닥 디커플링 지속.** 코스닥 AI 밸류체인 강세 시도에도 코스피 주도주로 자금 회귀. 동일 반도체 테마라도 코스닥은 자금 유입 열위, 여타 코스닥 주력인 2차전자·바이오 또한 추세 반등 부재 → 코스닥 상승 실패.
- **연초 대비 코스피 +101% vs 코스닥 -1%.** 양 시장 수익률 격차 재차 축소 실패. 코스닥은 지수를 끌어올릴 주도주 부재가 한계.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 중 3개가 큰 폭 하락. 알테오젠(-3.2%), 에코프로(-9.7%), 에코프로비엠(-7.8%).
- **삼성전자·SK하이닉스 합산 시총 비중 연초 35% → 상반기(6/30일) 55% 급증.** 블룸버그의 '땀 주식' 지목도 납득되는 sollim. 경제 규모보다 글로벌 공급망 내 포지션이 증시 가치의 기준으로 부상. AI 인프라 주도로 한국 증시 전반에 프리미엄 부여.

Eugene Daily Snapshot

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반도체 대형주 반등 & 메가프로젝트 후방 수혜주 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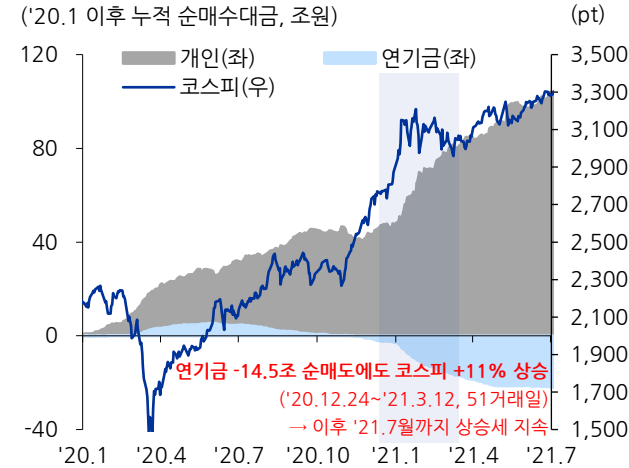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(+3.4%)·SK 하이닉스(+0.8%) 등 **반도체 대형주**는 전일 하락 딛고 반등. 전일(6/29)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삼성·SK 4,755 조 투자 → AI 밸류체인(반도체 소부장·전력기기·기판) 동반 급등.
- **소부장**은 전공정 장비 중심 강세(테스(+15.8%)·주성엔지니어링(+13.8%)). **전력기기**(가온전선(+22.5%)·산일전기(+8.2%)), **기판·부품**(삼성전기(+7.2%)·대덕전자(+16.3%))이 동반 상승. 삼성전기는 4,540 억원 규모 MLCC 공급계약 체결 호재도 공시.
- **우주항공**도 큰 폭 오름세. 스페이스 X 7/7 일 나스닥 100 편입 기대에 스피어(+14.7%)·에이치브이엠(+5.5%) 강세.
- 한편 **2 차전지**(LG 에너지솔루션(-9.6%)·에코프로비엠(-7.8%))·**바이오**(알테오젠(-3.2%))로는 순환매 미확산.

오늘의 클로즈업

연금 매도로 꺾일 추세였다

- 연금 리밸런싱 매도는 상승장을 꺾지 못함. 2020/12~2021/3 연금 51 거래일 간 14.5 조원을 순매도했으나, 개인이 32.4 조원 흡수 → 코스피는 오히려 +10.7% 상승. 당기도 코스피 3 천 돌파로 NPS 비중이 목표(16.8%)를 웃돈 21%까지 확대된 데 따른 매도였음.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**상승의 결과이지 하락의 원인이 아님**.
- **현 국면도 리밸런싱 규모는 우려보다 크지 않을 전망**. 5/28 일 기금위에서 국내주식 목표비율을 14.9% → 20.8% 상향하며 초과분 축소, SAA 허용범위 한시 확대 (±3%p → 언론보도상 ±6%p) & TAA ±2%p 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줄어들. 통상 TAA 미사용 감안 시 26.8%까지 조정 가능. 김성주 이사장도 6/23 일 간담회에서 시장 충격 최소화·점진 축소(내년부터 연 0.5%p) 원칙 재확인.
- 상승 추세가 꺾인다면 국민연금 매물이 아니라 AI capex 사이클의 균열, 혹은 피할 수 없는 특이점에서 비롯될 것. **곧 도래할 2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할 시점**.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주 전 대비 코스피를 상회한 반도체 & 금리 수혜(보험증권) & 내수소비(소매·필수소비) & 정부투자·낙폭과대(IT 가전(2 차전지)) 업종에 더욱 주목할 필요.

무려(!) 51 거래일 연속 순매도에도, 코스피는 올랐다



종시 자금 동향

		6/29 일	1D	1W	1M
고객예탁금		132.5	5.86	5.86	0.88
신용잔고	거래소	28.8	0.09	0.09	1.41
	코스닥	8.4	-0.05	-0.05	-1.62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372.1	0.28	0.28	-3.28
	채권형(전체)	213.2	-1.33	-1.33	-3.96
MMF		237.9	-0.60	-0.60	-15.63

(단위: 조원)

KOSPI 52 주 신고가 · 신저가

52 주 신고가 (3종목)		52 주 신저가 (28종목)	
금호건설	上	영흥	▼16.8
미래산업	上	성신양회우	▼10.7
케이씨텍	▲26.6	유유제약 2 우 B	▼8.5
		동양 2 우 B	▼8.3
		에이엔피	▼7.6
		진흥기업 2 우 B	▼6.2
		진양폴리	▼5.7
		대구백화점	▼5
		블루산업개발	▼4.8
		GKL	▼4.8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

순위	종목명	총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삼성전기	2,184,000	▲7.2	6,381
2	SK스퀘어	1,697,000	▲3.5	1,203
3	삼성전자	334,000	▲3.4	406
4	이수페타시스	115,400	▲5.2	348
5	LG이노텍	981,000	▲7.2	289
6	대덕전자	153,600	▲16.3	278
7	KB금융	159,000	▲3.5	256
8	SK	834,000	▲6.2	245
9	효성중공업	3,438,000	▲5	236
10	후성	20,050	▲7.2	112